

광주여성길은?

- 2022년부터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하는 광주여성 근대역사탐방로

- 1코스 **두훙길**(광주여성근대교육)
- 2코스 **백단심길**(광주여성독립운동)
- 3코스 **홍단심길**(광주학생독립운동과 근대 여성)

도보투어 신청 방법

운영기간 봄(3월 1일~6월 30일), 가을(9월 1일~11월 30일)
투어시간 코스당 1시간 30분
해설언어 모든 투어에 전문해설사 배치 / 한국어, 영어, 일어(신청 후 담당자와 협의)
집결지 두훙길, 백단심길 : 앙림동 평화의 소녀상
 홍단심길 : 금남나비정원 평화의 소녀상
문의 광주여성가족재단 062-670-0562

참가신청



더 광주답게 - 더 성평등하게

광주여성가족재단은 시민 행복을 위해 늘 함께합니다!

우리는 누구인가요?

광주여성가족재단은 2011년 설립된 광주 유일의 성평등, 여성·가족정책 전문기관입니다.
 지역 맞춤형 성평등, 여성·가족정책, 아동·청소년정책 연구 및 개발, 의제 발굴 및 현안 공론화, 네트워크 구축·활성화, 성인지 감수성 교육 및 문화 콘텐츠 개발·보급을 통해 지역과 공감하는 여성·가족 정책기관입니다.

MISSION | 성평등 광주 공동체 실현



VISION | 지역과 공감하는 여성·가족정책 플랫폼

우리 함께 소통해요!

홈페이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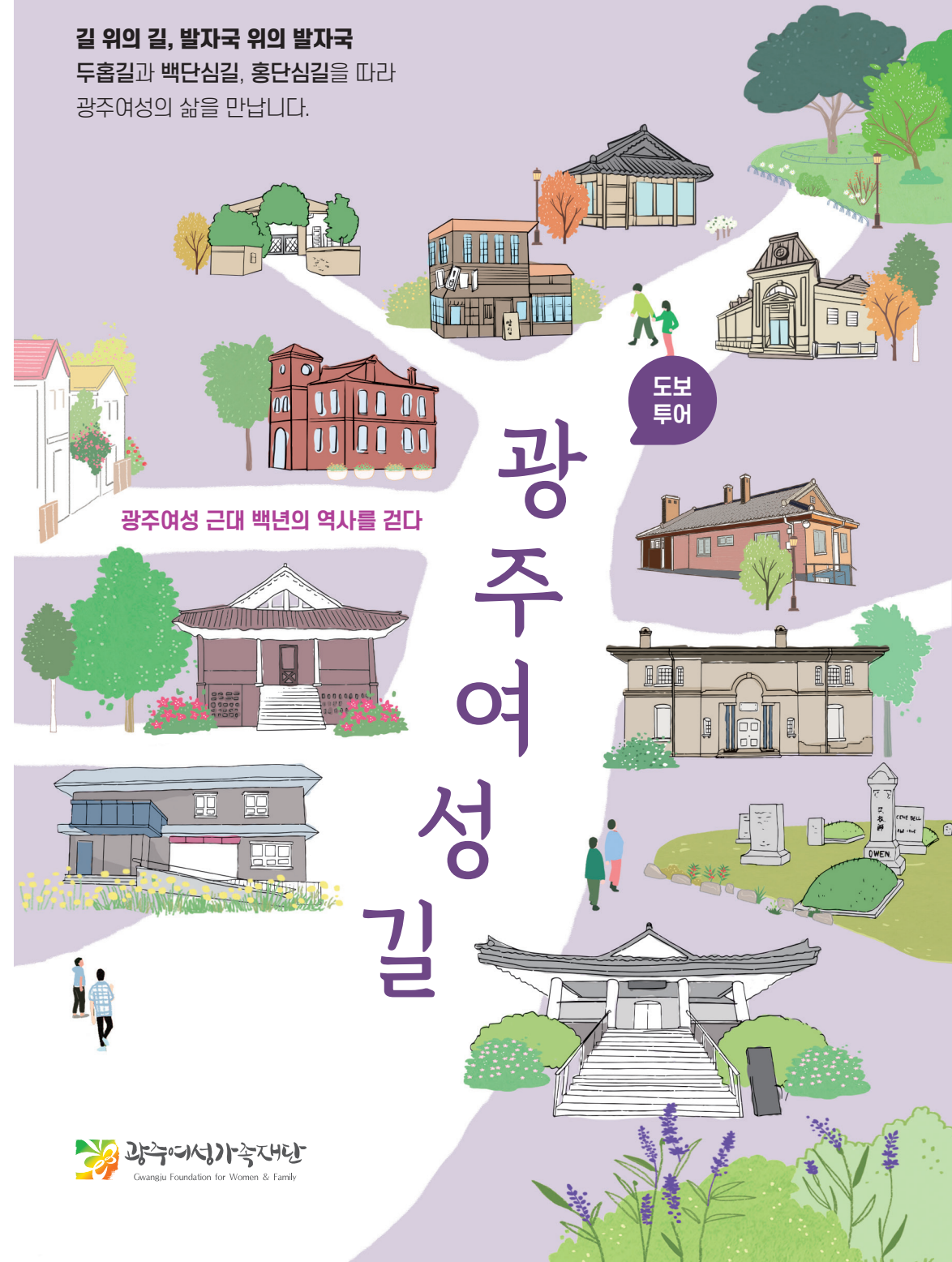
인스타그램

유튜브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07번길 15 광주시민회관 1.3.4F
 T. 062-670-0500 F. 062-670-0505 www.gjwf.or.kr

길 위의 길, 발자국 위의 발자국
 두훙길과 백단심길, 홍단심길을 따라
 광주여성의 삶을 만납니다.



도보투어

광주여성 근대 백년의 역사를 걷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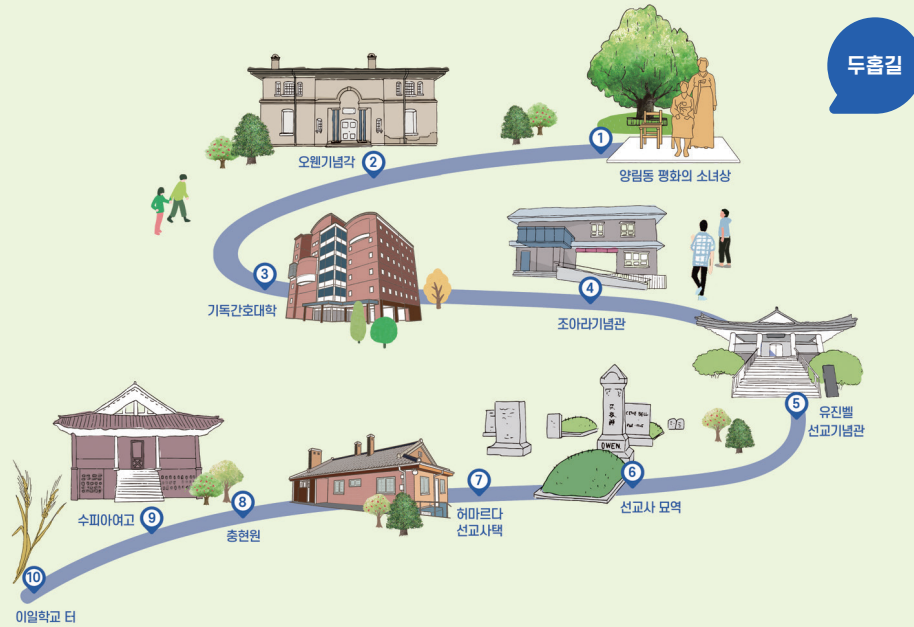


광주광역시 남구 중앙로 107번길 15 광주시민회관 1.3.4F
 T. 062-670-0500 F. 062-670-0505 www.gjwf.or.kr

근대여성교육의 시작과 서서평 정신, 두흠길

왜 두흠길인가요?

'흠'은 부피를 재는 단위로 약 180cc입니다. 서서평 선교사가 광주에 온 지 22년 만에 과로와 영양실조로 생을 마칠 때 남긴 것이, 잡곡 두흠, 반쪽짜리 담요, 엽전 몇 푼이었습니다. 광주를 위해, 가장 낮은 자를 위해 모든 걸 내어준 그의 뜻을 기려 붙인 이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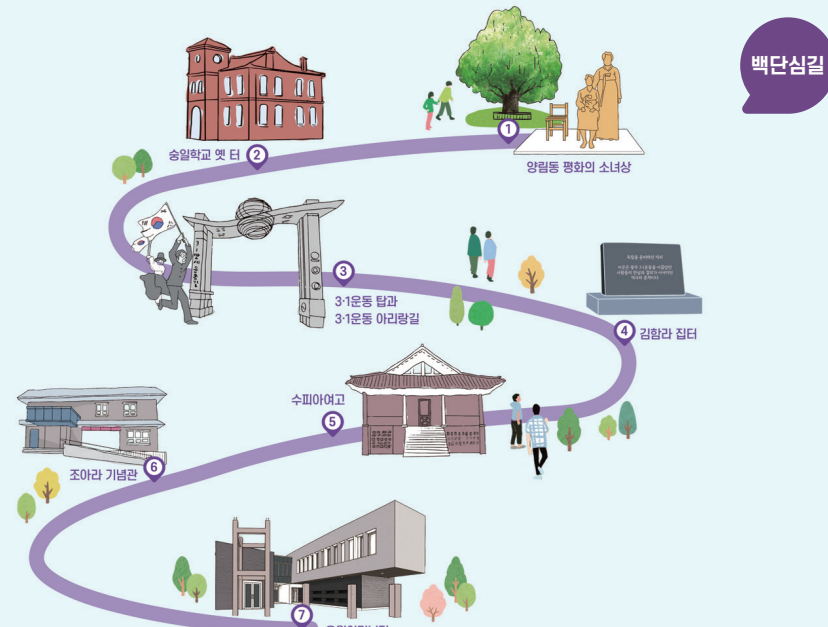
왜 서서평인가요?

서서평(徐舒平, Elisabeth Johanna Shepping, 1880~1934)은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한 푸른 눈의 광주여성”입니다. 1880년 독일에서 태어나 미국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후 1912년 남장로교 외국선교국 파송으로 조선에 오게 됩니다. 서서평은 제중병원(현, 기독교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를 시작한 이후 한국 최초의 여성 신학교인 이일학교(현, 한일장신대)를 세워 여성들을 가르쳤고, 양림동 일대에는 병나무를 심어 양잠, 직포 기술 등을 가르쳐 자립정신을 익히게 했습니다. 또한 오방 최흥종과 함께 한센환자를 위한 시설 건립을 위해 헌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광주에 도착한 날부터 생을 마감한 그날까지 미혼모, 고아, 한센인, 노숙인 등 가난하고 아픈 이들을 돌봐 주어 '나환자들의 어머니', '조선의 마더 테레사'로 불립니다.

독립을 향한 꺾이지 않는 의지, 백단심길

왜 백단심길인가요?

'단심'은 무궁화 꽃 가운데에 붉은색으로 퍼지는 부분을 말합니다. 백단심은 흰 꽃잎에 붉은 단심이 있는 꽃으로 가장 보편적인 무궁화이죠. 광주여성길의 백단심길은 하얀 한복 저고리에 피어난 독립을 향한 열망을 표현합니다. 여성들은 남성을 못지않게 항일 저항의 의지를 불태우며 3.1운동에 참여했고, 광주공동체가 억압과 불의에 맞서 투쟁하는 물결을 이루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런 점을 형상화한 길이 백단심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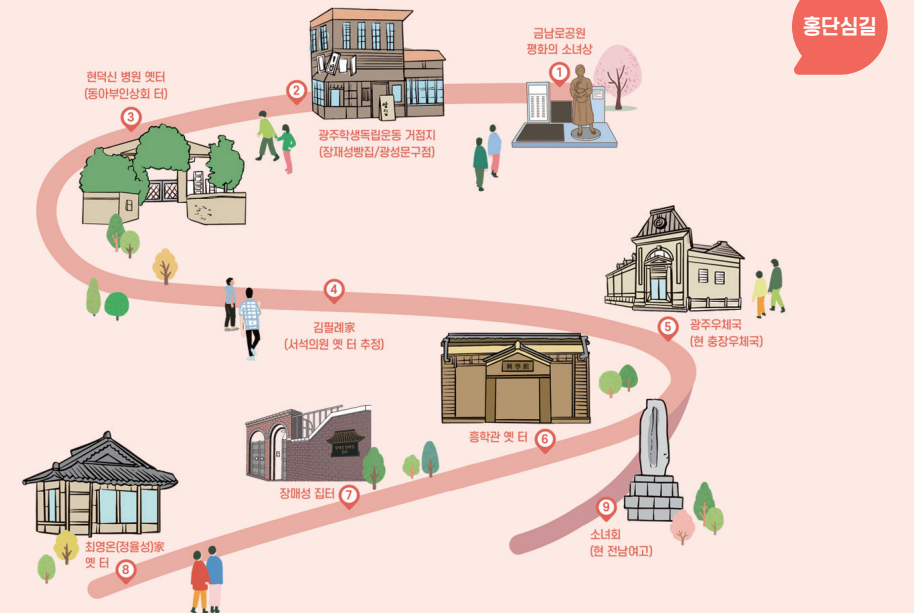
왜 김필례인가요?

백단심길을 따라 걷다 보면, 잔잔한 담쟁이넝쿨 위로 묵직한 숨결이 느껴집니다. 말보다 실천으로 시대를 이끈 여성, 김필례(金弼禮, 1891~1983)의 삶이 있기 때문입니다. 김필례는 1907년 서울 정신여학교를 졸업하고 1908년 관비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 동경여자학원에서 유학합니다. 귀국 후 1918년 최영옥과 결혼하여 광주 양림동에 거주하면서 동경 유학생들의 2.8 독립선언서를 복사하여 전국에 살포하다 일본 경찰에 발각되어 감옥살이를 하고 출소 후 수피아여학교 교사이자 흥학관의 야학교사로 참여합니다. 1922년 한국 YWCA 창설과 광주 YWCA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광복 후 수피아여학교 교장에 취임합니다. 여성교육에 한평생 헌신한 김필례는 “여성도 배워야 한다. 그래야 남자들에게만 의존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여성에게 삶의 주도권을 돌려주는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 시절 가장 치열했던 붉은 삶, 홍단심길

왜 홍단심길인가요?

홍단심은 분홍 혹은 붉은 꽃잎에 더 붉은 단심으로 이루어진 무궁화꽃입니다. 홍단심길은 광주 총장로의 여성들과 광주학생독립운동을 이끌었던 가장 진취적이었던 여성들을 조명합니다. 광주 최초의 여자의사인 현덕신과 일제의 경제착취에 저항했던 동아부인회의 여성들, 그리고 그 시대 가장 급진적인 이름인 비밀서모임 '소녀회'를 결성한 장매성 등이죠. 사회가 부여한 성역할을 넘어서 전문직업인이자 사회운동가로서, 저항운동가로서, 그리고 경제적 독립을 성취하고자 한 계몽가로서의 여성들. 그들은 누구보다 붉고 치열했습니다.



왜 현덕신인가요?

현덕신(玄德信, 1896-1963)은 1927년 광주 최초의 부인교를 개설한 여의사입니다. 1896년 평안남도 용강에서 태어난 현덕신은 이화학당을 졸업한 뒤 평양 진명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덕신은 당시 조선의 산모들이 출산하는 과정에서 목숨을 잃는 일이 많았는데 남의사에게 몸을 보이며 하지 않는 관습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현덕신은 '조선 여자들을 위한 봉사적 생'을 위해 의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1918년 동경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 졸업 후 총독부병원, 동대문부인병원 등에서 의사로 근무합니다. 1923년 동아일보 기자였던 최원순과 결혼 후 광주로 내려와 산부인과와 소아과를 개업하게 되죠. 여의사로 활약하는 가운데서도 사회운동을 이어나가 광주 YWCA 회장을 역임했고 근우회 광주지회를 설립했습니다. 항상 단발을 유지했던 이유가 머리 손질할 시간이 아까워서였다는 유명한 일화가 있듯, 현덕신은 한평생 민족의 독립을 위해, 여성과 소외된 이웃을 위해 살았던 여성 리더였습니다.